

광주여대 선·후배 4인방, 최미선·안산·김민서·오예진 “우리는 더 큰 꿈을 꾀다”



광주양궁을 대표해 2024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 나서는 김민서, 최미선, 안산, 오예진, 이승윤(왼쪽부터)이 6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진행된 훈련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함께달자 태극마크, 함께가자 파리로’

2024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 9일부터 광주국제양궁장

남구청 이승윤, 태극마크 수성 ‘올림픽 영광 다시 한번’ 출사표  
유일한 여고생 조한이, 이은경·남수현·서보은도 선의의 경쟁

‘양궁 명문’ 광주여대 선·후배 4인방이 파리 올림픽 태극마크를 정조준한다. 최미선·안산·김민서(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오예진(광주여대)이 오는 9일부터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2024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선·후배 우정을 뛰어넘는 ‘진검승부’를 펼친다. 기보배(2012 런던올림픽), 최미선(2016 리우 올림픽), 안산(2021 도쿄올림픽)으로 이어진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며 한국 양궁 새 역사를 쓴 광주여대 주역들은 4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꿈의 대기록에 도전장을 던졌다. 오예진과 김민서는 지난해 열린 2차 선발전을 통과했고, 최미선과 안산은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으로 참가한다.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3차 선발전은 2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20명과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남녀 각 4명 등 48명이 원점에서 열전을 치러 남녀 각 8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2023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에서 개인·단체전 2관왕에 오르며 건재를 과시한 최미선과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안산은 올림픽 영광을 재현한다는 각오로 사에 선다. ‘여고생 국가대표’로 주목 받으며 광주여대에서 기량을 키운 오예진과 광주은행 입단 2년 차 김민서도 꿈의 무대인 첫 올림픽 출전에 도전한다. 남자부에서는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2023 국가대표 이승윤(남구청)이 올림픽 재도전에 나선다. 파리올림픽을 목표로 강도 높은 동계훈련을

소화한 이승윤은 지난날 4일 열린 제2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실내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며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렸다. 기대주들의 급성장으로 전성기를 맞은 전남에서는 4명의 공사가 출전한다. 전남 양궁 만인니 이은경(순천시청)을 선두로 남수현(순천시청), 서보은(순천대), 조한이(순천여고)가 선의의 경쟁을 예고했다. 여고생으로 유일하게 2차 관문을 통과한 조한이의 태극마크 발탁 여부가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전남 공사들은 모두 9명이며, 이는 국가대표 3차선발전 사상 최다이다. 3차선발전에 참가하는 남녀 각 2명은 9일 1회전 70m(36×2) 기록경기를 시작으로 10일 2회전 3차례 토너먼트, 11일 3회전 2차례 토너먼트와 4번의 기록경기(3발×5세트) 합계로 남녀 각 16명을 가린다. 이어 선발된 16명은 순위 역배정을 안고 12일 3차례 토너먼트, 13일 1차례 토너먼트와 2차례 리그전을 치른 후 14일 2차례 토너먼트와 4번의 기록경기(3발×5세트) 합계로 최종 남녀 8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박희중기자



지난 4일 열린 2024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경 국가대표 2차선발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광희(가운데)가 시상대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유도 이광희 ‘금빛메치기’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 김지정 ‘銀’·신채원·양서우 ‘銅’

전남 유도가 2024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경 국가대표 2차선발전에서 4개의 메달을 따냈다. 전남유도회는 6일 “오는 9일까지 순천만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순천공고를 졸업하고 여주시청에서 활약한 이광희(국군체육부대)가 남자부 -81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광희는 1회전에서 이운상(광주시체육회)을 누으며메치기 한판승으로, 2회전에서 이규찬(경기대)을 굳히기 절반과 양소매업어치기로 절반을 따내며 한판승으로, 3회전에서 김민수(한국체육대)에 외기 업어치기로 절반과 굳히기 한판승으로, 4회전(8강)에서 김선우(한국체육대)를 업어치기 절반, 굳히기 한판승으로 꺾고 준결승에서 4개의 메달을 따냈다. 준결승에서 이준성(경남도청)에게 지도승을 거둔 이광희는 결승에서 고재경(경남도청)을 상대로 누으며메치기로 한판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부에서는 함저우(아시아게임동메달리스트 김지정(순천시청))이 -63kg급 결승에서 차민지(제주특별자치도청)에게 한판패를 내주며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63kg급에 출전한 신채원(순천시청)과 -52kg급에 출전한 양서우(순천시청)는 각각 동메달을 보냈다. /박희중기자

PSG 이강인, UCL 첫 도움, 팀은 3년 만에 8강行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이 6일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의 아노에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2023-2024시즌 UCL 16강 2차전에서 팀이 1대0으로 앞선 후반 11분 침투 패스로 음바페의 골을 도운 후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지난해 10월26일 AC밀란과 조별리그 경기에서 UCL 데뷔골을 넣은 이강인은 이번에는 이 대회 데뷔 도움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한 파리 생제르맹은 3시즌 만에 대회 8강에 올랐다. /로이터=연합뉴스

최혜진·김세영, 파리行 노린다

오늘 개막 블루베이 LPGA, 한국여자골프 올 시즌 첫 우승 도전



2024시즌 초반이지만 아직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한 한국 여자골프 선수들이 이번 주에는 중국으로 향한다. 7일부터 중국 쟈웨이 블루베이 골프 코스에서 열리는 블루베이 LPGA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대회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회가 개최되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4년 만인 올해 다시 대회를 유치했다. 올해 LPGA 투어에서는 4개 대회가 열렸는데 한국 선수들은 우승하지 못했다. 경쟁한 실력을 갖춘 한국 여자골프 프이기에 언제든 우승 소식을 전해줄 수 있지만,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해라서 골프 팬들은 초조하다. 한국이 올림픽에 최대 4명의 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해서는 6월24일자 세계골프랭킹 15위 안에 4명이 이름을 올려야 한다. 이번 주 블루베이 LPGA에는 고진영과 김효주, 양혜영이 출전하지 않지만 세계랭킹 39위 최혜진과 39위 김세영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세영은 2015년 이 대회 우승자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더 강해진 광주 “강원도 와라”

광주FC, 오는 10일 강원FC 상대 ‘홀 2연승 도전’

‘막강 듀오’ 이희균·가브리엘 발끝, 연속 골 정조준



프로축구 광주FC가 강원을 상대로 홀 2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10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강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2일 열린 개막전에서 이희균과 가브리엘의 연속 골을 앞세워 FC서울을 2대0으로 완파했다. 광주의 1라운드는 우승 후보 면모를 보여준 명승부였다. 슈팅(12-9), 유효슈팅(6-3), 코너킥 수(8-5) 등 모든 부문에서 서울을 압도했다. 유기적 연계 플레이와 수준 높은 오프더볼(Off The Ball) 움직임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이정호 감독은 만족하지 못했다. 전·후반 내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일관된 경기력을 요구했다. 2라운드 강원과의 경기가 기대되는 이유다. 팀 에이스로 거듭난 이희균-가브리엘 듀오가 핵심이다. 이희균은 부지런히 공수를 오가며 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 빠른 발을 이용한 전진 드리블과 한층 강화된 골 결정력으로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 가브리엘은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운 엿박자 드리블로 수 차례 위협적 장면을 만들었다. 중원을 지키는 최경록-정호연도 든든하다.

프로 3년 차, 어느새 팀의 에이스로 등극한 정호연은 유연한 탈압박과 정교한 패싱 능력으로 이정호 감독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독일 분데스리가2 출신 베테랑 최경록도 테크닉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날카로운 윙백 킥과 전진 드리블로 잇따라 위협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2라운드에서 상대할 강원의 전력도 만만치 않다. 1라운드 홈 경기에서 제주와 1대0로 비겼지만, 윤정환 감독의 빌드업 축구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평가다. 투톱으로 나선 외국인 공격수 가브리엘과 선제골을 기록한 이적생 이상준은 날카로운 공격력을 선보였다. 제2의 양현준으로 불리는 신예 공격수 양민혁도 주목할 만한 선수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선 1승 2무로 광주의 우세.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광주는 강력한 중원 압박과 활발한 스위칭 플레이로 다득점 승리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올 시즌 성공적인 시작을 한 광주가 강원을 제물 삼아 홀 2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기자

